

<2010년 6월 15일 화요일 새벽 잠언>

1. 하나님과 주님의 역사는 신의 역사이기에 어느 때는 10분, 어느 때는 한 시간, 어느 때는 몇 시간, 어느 때는 하루, 어느 때는 일주일, 순간 순간 진행되고 끝난다.

<6월 14일 월요일 새벽 잠언 같이 읽어 주면 좋음>

- *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진행되고 있어도 모르면 순간 지나간다.
- *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한 시대가 가도 모르는 자에게는 순간 지나간다.
- * 깨어 근신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땅에서 인연을 맺어 영원까지 간다.

2. 사람이 먼저 잠에서 깨어나야 자기 역사가 일어난다. 먼저 잠에서 깨어나야 무엇을 행하게 되고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. 이와 같이 자기 신앙의 잠도 깨어나야 자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.

3. 잠으로만 피곤한 몸을 풀려고 하면 항상 4~5시간을 자야 된다. 그렇다고 피곤이 풀어지는 것도 아니다. 더 자야 하고, 자기가 더 이상 잠 자기 싫을 때까지 계속 자게 된다. 그러면 7~8시간까지 자게 되고, 그 이상을 자게 되기도 한다. 잠자서 풀 것 운동으로 풀고, 목욕해서 풀고, 기도하여 능력을 받고 영적으로도 풀고, 그밖에 여러 가지로 풀 것이 많다. 새벽에 기도하여 그 시간을 기도 체질로 만들어라.

<6월 14일 월요일 새벽 잠언 같이 읽어 주면 좋음>

- * 잠을 뺏기면 육이 피곤하지만, 새벽 시간에 잠자느라 기도 시간 뺏기면 영이 피곤하고, 마음이 피곤하고, 삶이 피곤한 것이다.

4. 주님의 일을 즐거움으로 해야 정상이다. 억지로는 못 한다. 은혜 받고, 깨닫고, 성령 충만하고, 주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의 희망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다. 해 봐야 알게 된다.